

2021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심의위원 의견서

2021.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1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 2021. 10. 6. (수) ~ 10. 7. (목)
- ◆ 방 법 : 서면심의
- ◆ 참 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 일반안건 9건 17작품 (조각 15 회화 1 기타1),
보고안건 1건 1작품

※ 본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반안건>

1. 영원한 빛 - 솔라시도

<긍정적 의견>

- 회화이면서 조각이며 미디어라는 점에서 독창적
- 작품 설치 공간과 작품(LED)재료 및 미적조화가 적합함
- 현대적 건축물과 어울리는 병풍처럼 늘어선 기둥에 LED를 이용한 빛으로 단순 미와 조형물에 회화적 표현이 가미된 작품으로 긍정적임
- 조각의 범주에서 미디어 외 수작업으로 회화성을 가미한 부분이 독창적으로 평가됨
- 야간에 내부 LED빛과 구조물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가 화려할 것으로 예측됨
- 작가 기존작품세계가 반영된 작품
- 작가의 기존 전시 작품과 연결성이 있고 미디어 회화 조각이라는 형식이 독창적으로 보여짐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수정요구사항이 보완 되었다고 보임
- 주야의 다른 이미지를 주어 흥미로워 보임
- 참고영상의 조명밝기나 색상은 적절함
- 곡선의 건물 외관과 잘 어울리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빛의 드로잉 조명조각으로 비교적 양호함
- 작품의 독창성과 예술성이 긍정적임

- 회화적 감성과 미디어, 두 가지의 감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보는 위치와 동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작품이 신선하게 느껴짐. 작품의 완성도 또한 적당하게 판단됨
- 전작 보다 개선, 건축물의 형태와 적절한 조음
- 이전 작품의 의견이 반영됨

<부정적 의견>

- 낮과 밤의 작품 차이가 큼. 특히 낮에는 무채색의 작품으로 주변 경관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놓일지 제시가 되지 않았음
- 구조물 배치가 단조롭고 공간을 답답하게 보이게 하여 주변환경과 부조화함.
- 미술작품의 심미성이 주야간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됨
- 다수의 구조물에 설치된 LED조명의 지나친 광량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감 유발
- 야간 조명이 지나치게 화려함
- 지나치게 밝은 조도가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여전히 빛 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분할된 면이 연속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낼 수 있을지 의문
- 시각 이미지의 활용이 단순하고 직접적임. 간결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함축적 표현이 필요함
- 집중되지 않는 회화와 조각, 미디어의 어색한 조합
- 작품주제가 직설적이고 설명적
- 틀만 제안된 형태(액자만 언급)-artwork(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없음

<기타 의견>

- 향후 광학관련한 유지보수시 필요한 개폐형 조명 점검구의 상판사이즈 또는 상판이외의 위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조도에 관해서는 현장과 주변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음

2-1. Vertical Garden(수직의 정원)

<긍정적 의견>

-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시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작품이 건물의 컨셉에 어울림
- 공간에 조화로운 세련된 조각 조형성
- 장소에 어울리는 독특한 조형
- 물리적 공간의 성격, 상업적 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는 작품으로 사료됨
- 공간과 잘 어울림
- 버려지는 공간 혹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공간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를 띠고 있

다고 보임

- 비교적 조각이 놓일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어낸 작품으로 양호함
- 무난한 작업이라고 판단됨
- 건축물과 작품 공간의 조화가 잘 어우러짐
- 건축물의 중정에 적당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으로 건축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됨. 기하학적 둥근 모듈은 직선 건축물의 차가움을 감해주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점들까지 부족하지 않게 표현되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완성이 되었음
- 금색의 도금이 얼마만큼 고급스럽게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작업의 완성도가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임.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업으로 평가됨

<부정적 의견>

- 작품이 의도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다소의문임. 또한 유지 관리의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 필요
- 작품이 설치될 장소와 작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 불안하게 보이는 구조
- 안정성과 유지관리 부분에서 미흡함
-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는 작품구조 특성상 물리적구조안전이 검토되었다하더라도 장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다소 우려됨
- 작품과 행잉구조의 설치 방법이 조화롭지 못함
- 작품의 스케일 외 관람객의 미적체험이라는 이익 달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괴하고 조잡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음
- 공간의 수직성을 이용한 것은 좋으나, 큰 외형만 변주될 뿐 공간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형요소는 독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작품제작의 난이도와 재료 등을 검토해 볼 때 예산과다 책정

<기타 의견>

- 매달려 설치되는 작품의 특성상 좀 더 보완된 안정성을 확보 바람

2-2. Cuboid Stroke_Elm-like(입방획 느티나무처럼)

<긍정적 의견>

- 단순하지만 역동성으로 결코 단순하지 않은 작품
- 과도한 장식성이 배제된 조형물이 공간과의 어울림으로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됨
- 작가의 기존 전시 작품과 연결성이 있고 작품의 의미가 외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공간에 조화로운 조형성
- 작가의 기존작품 세계가 반영된 작품
-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감상의 재미를 유발하는 유쾌함
- 공간과 잘 어울리고 무난한 디자인
- 단순하지만 응축적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감성을 관람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무난한 작업이라고 판단됨
- 트렌디하며 외관상 세련된 미가 있음
- 직선과 돌, 시멘트 건축물에 둥근 획의 개념을 형상화한 본 작품은 만남의 미니 광장에 공간의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판단됨.
- 회색과 차별되는 진한 핑크 컬러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짐

<부정적 의견>

- 느티나무가 주는 휴식의 느낌을 의도했지만 그러한 감성을 주지는 않음
-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형태감이나 색감이 연상되지 않으며 모호함
- 진부한 표현으로 새롭거나 참신함이 없음
- 너무 단조롭고 특색이 없는 진부한 조형성
- 단조로운 해석과 모호한 표현력 및 작품 설치에 따른 임팩트 부족
- 호불호가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미적 체험이라는 이익 실현이 이룩될지 의문
- 곡선형의 조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건물의 외관과 작품의 형식 색감이 다소 부조화스럽게 보여서 위치나 설치될 공간의 제고가 요구됨
- 작품의 주제 및 의도가 불분명함
- 대중들이 작품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는 조형물임. 반드시 이 위치를 고집한다면 하부를 가법게 하여 동선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음
- 공간을 막고 있어 답답해 보임, 위치선정에 대한 고려 필요. 건축물미술품에서 너무 흔한 조형성이라 별다른 감흥을 주지는 못함

3. The breeze(미풍)

<긍정적 의견>

- 바람과 물 같은 자연의 유동성이 잘 드러난 작품
- 조형물에서 오는 시각적 포인트가 주출입구를 강조하는 장소적 특성 및 설치 공간과의 자연스럽게 어울림
- 공간에 무리없이 어울림
- 작가의 기존 전시 작품과 연결성이 있고 작품의 의미가 외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확장되어 기대되는 작품임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제목과 작품 표현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움
- 청량감을 주는 공간 해석력
- 주변 경관과 어울림
- 비가시적 움직임을 시각화하여 관람객의 미적체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무난한 작업이라고 판단됨
- 작품의 주제표현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솟아오르는 듯한 상승 기운과 컬러가 단지 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듦. 생동하고 역동적인 기운과 어느 곳도 부족하지 않은 세련된 조형미가 공간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의견>

- 공공영역 미술작품의 조형 형태로 많이 보게 되는 다소 진부한 조형성
- 익숙하고 진부한 조형
- 주제표현 방식이 1차원적 개성 부족
- 다소 단조로움
- 조형물 주변의 건축물이 가까이 있고 건축과 조경만으로도 이미 차 있어 보여, 조형물이 들어서기에 적합해보이지 않음
- 곡선형의 조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설치될 장소에 작품의 감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함. 위치나 설치될 공간의 제고가 요구됨
- 작품의 위치선정에 대한 재숙고가 필요해보임. 작품의 조형성 또한 너무 흔한 형태라 독창적으로 보기 힘들
- 주변 장소가 작품의 조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보여 작품의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본 작품의 조형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타 의견>

- 거대한 작품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 설치해야 할 것임

4. 物外物(물외물)

<긍정적 의견>

- 대나무 형상과 사용된 재료가 신선한 감성을 줌
- 건물과 잘 조화를 이룬 조형물이라 판단됨
- 작가의 기존작품 세계가 반영된 작품
- 이질감 없는 자연물의 작품화
- 자연을 모티브로한 미니멀한 연출이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림

<부정적 의견>

- 제목을 통해 작품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음. 또한 작품 설명이 애매모호함
- 독창적인 작가의 작품경향은 이해되나, 건축물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으로서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보완 필요
-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으로서 해석이나 표현방식이 빈약하며 직접적임
- 작가가 제출한 기존작업은 실내 설치작업으로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출 가능했던 것에 비하여 이번 작업은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모양으로 보여짐. 대나무 이미지의 재현에서 더 이상의 예술적 상상력이 제공되지 않음
- 작품 설치위치가 건축물에 너무 근접하여 부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음
- 원형의 형식으로 전방위에서 감상되어야 할 것 같은 작품의 후면부가 건축물에 가까이 배치되어 답답한 느낌을 주며, 공개공지에 활력을 주는 작품이라고 보이지 않음
- 건물과 가까이 위치한 설치 위치가 작품 감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됨
- 외진 곳이고 건물과의 거리가 여유롭지 않고 야간에 조명을 비추다해도 작품이 관람객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대나무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범한 조형성에 예술성, 독창성, 호소력 등이 부족해 보임
- 작품의 표현이 단순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공 미술로 보기 어려움 어린아이 등 끼일 염려가 있다고 판단됨
- 대나무를 이용한 주제 표현에 있어서, 표현력이 부족하며 심오함
- '시장'이라는 설치 공간과 작품과의 조화가 어우러지지 않음
- 강북종합시장 건축물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직선적인 건축물에 복잡하고 어두운 컬러에 직선적인 대나무 형태의 조형물과는 조화롭지 않게 판단됨. 생명력이 좋은 대나무는 굳이 조형물로 하지 않고 실제 대나무를 심는 것이 더 좋을 듯함. 강북 종합시장에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형물 필요함
- 작품의 색감, 위치, 공간 등의 매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작품이 좀 더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 조율 필요

<기타 의견>

- 조형적 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부조명이 아닌 조명장치를 작품 내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봄

5-1. The story of one's heart

<긍정적 의견>

- 문래동의 지역적 특성과 상징성을 반영
-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너트로 활용한 조형물이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무난해 보임
- 지역의 상징성을 활용한다는 의도는 좋음
- 지역의 역사적 팩트를 확인하고 이를 조형적 요소(목화)와 재료(너트, 철)로 활용하고자 했음
- 건축물과 작품이 무리없이 조화로움
- 작품의 제작 의도와 주제가 뚜렷하고 긍정적임
- 지역의 장소성 (철과 섬유)중 철 (너트)를 이용하여 만든 사슴 형태와 목화 나무 형태를 차용 한 사슴뿔 형태가 역사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 특별함이 느껴짐. 조형물의 친밀한 형태와 조형성은 충분히 주거 환경에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의견>

- 재료 사용과 목화 형상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작품이 사슴 형태를 띤 의도는 분명하지 않음
- 너무 익숙한 형태의 조형성
- 식상한 조형언어
- 작가의 기존 작업과 전혀 연관없는 작업으로 예술적 상상력이 결여된 작업임. 작품의 제목 과 작업이미지의 연관성도 보이지 않음
- 표현이 다소 진부함
- 장식성에 중점을 둔 동물형상 기반의 진부한 조형적 표현
- 설치지역의 특성이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작품의 감상포인트가 폐쇄적으로 느껴짐
- 기시감을 주는 단순한 조형과 연출이 주변 맥락과 어울리지 않음
- 제안된 작품 두 개 모두 동물 이미지로 겹침
- 작품주제와 형상의 모호함
- 다만 조형적 임팩트를 주기에는 다소 느슨하거나 심도있는 생태 연구가 미진해 보임
- 하부구조의 동물형상이 이 지역의 생태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의문
- 사슴의 뿔에 목화나무를 결부한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움, 기

존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타공기법 조각의 문제점이 상존함

- 어린아이의 손가락 등이 끼일 염려가 있음.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슴과 목화의 조화가 다소 난해함
- 목화의 형상이 뚜렷하지 않고, 모호함
- 동물이라는 친근한 대상을 취하는 건 좋으나 작품으로서 접근이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여 아쉬움
- 조형미 뿐 아니라 어디에 왜 놓이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 주변 건물들과의 조화 등도 고려 상황

5-2. bliss blossom

<긍정적 의견>

- 문래동의 지역적 특성과 상징성을 반영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적 특성도 작품에 반영
- 지역의 역사에 관련한 모티브를 활용하여 반영된 작품으로써 설치되는 장소와의 매치로 관심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의 역사적 팩트를 확인하고 이를 조형적 요소(목화)와 재료(너트, 철)로 활용하고자 했음
- 건축물과 작품이 무리없이 조화로움
- 작품의 제작 의도와 주제가 뚜렷하고 긍정적임
- 본 작품은 건축물 중 보육시설과 놀이터에 위치하여 친근하고 즐거운 상상을 줄 것으로 보임. 지역의 장소성(철과 섬유)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철과 목화를 소재로 한 작품성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며 분위기도 주변과 잘 맞는다고 판단됨

<부정적 의견>

- 작품의 컨셉이나 조형적 표현이 흔하고 상투적
- 예술적 상상력이 결여된 작업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화이미지 관련 전달력도 부족해 보임
- 두 개 조형물의 상호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 진부하고 복잡한 조형표현
- 주변 환경과 부조화한 복잡함
- 설치지역의 특성이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작품의 감상포인트가 폐쇄적으로 느껴짐
- 동화적 장면 연출과 조형이 주변 경관 맥락과 동떨어져 어울리지 않음
- 제안된 작품 두 개 모두 동물 이미지로 겹침
- 유사한 형식의 작품 존재
- 직설적인 표현방식

- 조형적 임팩트를 주기에는 다소 느슨하거나 심도있는 생태 연구가 미진해 보임
- 하부구조의 동물형상이 이 지역의 생태와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의문
- 면적으로 해석된 공 조각과 곡면으로 표현된 꽃 조각이 부조화스러움. 꽃 조각도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면조각으로 환원하거나,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조각을 풀어내지 말고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집약된 단일 조각으로 함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작품의 주제 표현 등이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꽃의 형태 등에서 어린아이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됨
- 동물이라는 친근한 대상을 취하는 건 좋으나 작품으로서 접근이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여 아쉬움

6-1. Tree

<긍정적 의견>

- 자작나무를 소재로 하여 작품에 변화를 줌
- 모티브를 활용한 유니크한 조형물들이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고 시각적관심도를 줄 것으로 보임
- 이전작품보다 안정적으로 보완 수정됨
- 기존 작업에서 발전함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작품에 표현된 재미있는 인물표현
- 이전 작품보다 공간과 주제에 대한 표현력이 세련됨
- 색의 절제와 수직의 구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림
- 공간과 조화되는 과하지 않은 조형
- 전작보다 개선
- 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사람형상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을 떠올리게 함. 또한 늘 다른 작가들 작품과 특별한 무엇인가 차별화 되어 관람자의 심상과 꿈을 자극하고 여행을 자극함. 청량지역과 인접한 건축과 작품의 장소성은 안전한 귀환의 의미와 맞게 떨어짐
- 기존 대비 발전된 조형성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인물의 형상보다 부수적인 자작나무의 형상성이 부각되는 한계가 노출됨

<부정적 의견>

- 작가의 작품이 공공미술작품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어 식상함
- 아파트 주거공간을 답답하고 복잡하게 보이게 하는 부조화한 작품배치와 수량
- 인물형상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진부함

- 작가의 이전 작업의 반복적 재현이라 참신성이 감지되지 않음
- 심의 내용이 반영 및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나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불안함을 안겨줌
- 함축성 없는 작품의 개념에 비해 작품가는 여전히 과다함
- 조형물의 존재가 정확히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어긋남
- 관람자들의 시선은 나무에 해당하는 열주만 인지 가능한 구조
- 스케일에 대한 고려 필요

<기타 의견>

-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임. 나무 주변의 튀어나온 부분들이 계단 역할을 할 수 있어 안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소 수량을 줄이고 각 구조물의 규모와 완성도를 높이면 좋을듯함
- 사람에게 표현된 의상이 나무 무늬와 같아서 아쉬움이 있음. 각자 다른 생동감 있는 컬러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듦

[6-1.~6-6. 공통]

- 높이 200m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거주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라 전반적으로 수직적 구조의 작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또한 6점의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3개 주제로 나눴음. 하지만 3개 영역으로 나눈 구획이 과연 스토리 구성에 적합한 지 의문. 단조로운 수직적 구조 위주라 3개 주제 구획이 잘 드러나지 않음. 또한 동선이 아트→기억→자연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제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읽거나 강제 받을 이유가 없음. 오히려 건축물의 규모나 위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작업 그대로, 개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6-2. Slice-image-만남

<긍정적 의견>

- 시각으로 촉각적 지각을 주어 감각의 확장을 경험케 함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일관된 형태적 구조를 유지, 주변 공간과 조화로움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구조가 조형으로 드러나는 흥미로운 표현
- 주제 선정이 긍정적임
- 작품과 설치 공간과의 조화가 어우러짐
- 작가의 특성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비교적 무난하나 주제가 다소 평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정적 의견>

- 작품대가 작품과 어울리지 않음
- 작품좌대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좌대 높이 및 면적에 대해 고려 필요
- 작품과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고, 좌대와 인체와의 조합도 효과적이지 못함
- 신체 부분의 시각적 효과가 좌대의 무거움으로 감소되어 보임
- 작품과 설치 공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주거공간에 설치되기에는 다소 어두워 보임
- 조각 받침대와 조각의 부조화
- 두 명의 인물상 아래 좌대와 같은 형식의 구조물이 상부작품의 조형적 장점을 방해함
- 인상적이지 못한 해석과 표현력
- 주제의 표현이 다소 진부함
- 다소 진부한 작품
- 너무나도 전형적인 방식의 '남녀간의 사랑' 표현
- 작가의 이전 작업의 반복적 재현이라 참신성이 감지되지 않음
- 작품에서 만남의 표현 방식과 의미 등이 작품의 형식에 비해 단순함 남녀의 만남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일방적인 뉘앙스로 시대적 인식과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3D 표현 기법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표현의 의도는 좋으나 결이라는 디자인 컨셉이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됨. 조형물을 받치고 있는 부분에 인체 형상이 올라가 있는 것도 다소 불안정하게 느껴짐.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다소 불편함

<기타 의견>

- 바닥에 조형물을 놓으면 보다 안정적이고 위화감이 덜 느껴질 듯

6-3. space 2021-에코힐링

<긍정적 의견>

- 나뭇잎의 표면을 모티브로한 조형성이 설치 장소와 조화로움
- 두 개의 원호의 구성이 조형미가 있음
- 전작과 비교하여 많이 발전 된 조형성과 작품설치위치
- 유기적 형태와 그 형태를 구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적절한 묘사력이 느껴짐
- 전체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에 적합한 조형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 작품과 설치 공간과의 조화가 어우러짐
- 무난한 작품임

<부정적 의견>

- 형태와 구조가 단순하고 식상함. 작가의 포토폴리오 작품만큼의 수준이 아님
- 틈새로 오염물 투기로 인한 작품손상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진부한 표현으로 새롭거나 참신함이 없음
- 보는 이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주지 못함. 조형언어가 진부하여 현대적인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음
-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장식물로 보임
- 투각구조물의 특성상 이물질 문제 및 관리의 어려움
- 아이들도 접근 가능한 공공미술로서 금속 절단면 구멍의 날카로움, 손가락 끼임 우려
- 작품 주제에 비해 표면이 거칠고 복잡함 또한 망사 형태의 스틸 구조 등은 손 끼임 등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손 끼임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익숙하고 진부한 형식
- 진부한 디자인
- 전형적인 진부한 형식의 작품으로 작품이 예술성, 독창성, 호소력 측면에서 공감하기 어려움
- 작품의 조형성이 평범함
- 형태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조형요소들이 작가의 기존어법에 비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처럼 보임

6-4. Resilience-서정적풍경(미루나무)

<긍정적 의견>

- 작가의 작품성이 반영된 작품
- 무난함
- 조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자연을 담은 조각적 상상력
- 자연을 독특한 조형으로 재해석하여 주거공간에 흥미유발
- 무난해 보임

<부정적 의견>

- 제시한 이미지로 마지막 결과물을 예측하기 힘들
-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반복으로 지루해 보임
- 보는 이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주지 못함. 조형언어가 진부하여 현대적인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음

-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장식물로 보임
- 시원하게 열린 공간에 너무 많은 구조물 설치로 인한 답답함 유발
- 공간과 부조화
- 작품의 크기, 개수, 배치의 재고(작품과 공간이 場을 만들어내는 작품 같음에도 정면성이 느껴져 경직되어 보임)
- 주제 전달이 잘 되지 않음. 작품의 자연친화성이 무엇인지 의문
- 나무를 형태로 구현한 작업이 그리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음
- 작가의 작품적 성향인 것은 이해되나 작품의 외형과 안의 내용과의 조화가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한 작품으로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나무로서의 조형성 재고가 요구됨
- 작품의 표현 이미지 중 하단의 물결이미지는 1차원적이며 단순한 구조임. 물결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의 방식에서 다양한 조형적 표현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여전히 작품해석과 조형 표현이 난해함
-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는 컨셉인데 작품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다시 복잡해짐을 느끼게 됨
- 조형 의도는 좋으나 작품 자체의 조형성에 아쉬움이 느껴짐
- 삼화같은 숲의 형상으로 동화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흥이나 경험을 주기에는 다소 빈약한 연출과 개념
- 프레임만 보이고 정확한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몰됨

<기타 의견>

- 작품을 구성하는 개수를 줄이든가, 펼쳐져 있는 작품설치 공간을 모이게 하여 설치하는 것이 완성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5. 바람이 불어도 간다

<긍정적 의견>

- 작가의 기존작품 세계가 반영된 작품
- 해학적인 표현력으로 유쾌한 공간연출
- 스케일을 이용한 흥미로운 서사
- 유머러스한 작품을 통해 환기를 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정적 의견>

- 주변 환경과 어울리기 보다는 이질적
- 상투적이고 관행적인 의미의 조형적 형태와 구성으로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음

- 건물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임
- 설치공간과의 부조화
- 제목과 작품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 보는 이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주지 못함. 조형언어가 진부하여 현대적인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음
-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장식물로 보임
-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진부함
- 도깨비 방망이가 연상되는 조형물이 주변 조경 및 건축물의 디자인과 부조화해보임
- 조형 형태가 주는 기이함이 부각되어 주택입구에 적합한 조형으로 보이지 않음
- 6-5, 6-6 세로로 긴 조형물의 반복
- 작품의도와 달리 어떻게 연계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주제 표현방식의 전달력 부족
- 위트 넘치는 작업으로 소개했지만 형태와 컬러가 조화롭지 않음
- 건물의 성격, 장소의 특성과 부합하지 못한 작품으로 판단됨
- 작품 주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으며 기존 작가 작품의 자기복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 공간과 어우러지지 않고, 어색한 느낌을 줌
- 대중들이 바라보기에 주제를 이해하기 보다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강함
- 도깨비 방망이라는 형태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작품의 표현 형태로 작품이 1차원 적이라는 생각이 듦. 롯데캐슬이라는 주거 공간에 도깨비 방망이는 우위적 소망을 꿈꾸게 하는 조형물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받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듦
- 작품이 놓인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하거나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방망이 옆의 인물의 크기도 애매해보임
- 공공성에 대한 문제, 작가 개인의 언어만을 강조할 수 없음

6-6. SPACE-Trace-Position

<긍정적 의견>

- 재미있는 작품으로 판단됨
- 전작과 비교하여 개선된 조형성

<부정적 의견>

- 식상하고 특별한 감흥을 주지 못함
- 조형물에서 오는 모티브들이 주변 대상지 공간과의 부조화
- 일반적이고 평이한 조형적 구성 내용의 조형물
- 기하학적 형태, 메스, 리듬, 비례 감각에 의한 생동감, 물성과 공간 해석에 대

한 관계성을 이루어 조형화 한 작품으로 공간과 선율의 조화를 이루어 표현하였다는 작가의 의도를 찾을 수 없는 작품임

- 조각의 강점인 입체구조를 너무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한 작품
- 여전히 모호한 조형성
- 독특한 조형으로 주변 공간에 어울림
- 6-5, 6-6 세로로 긴 조형물의 반복
- 경직되어 보임
- 작품의 의도 주제, 전달 미흡, 모호한 형상
- 이전 심의 작업과의 차별화가 떨어지고 장소 해석도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기존의 조형성과 구조가 단조롭고 평이하다는 평가에서 발전되거나 보완된 측면을 찾기 어려움
- 시각적인 형태와 표현방식 조형언어가 거주 환경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좀 더 친근한 표현이 요구됨
- 작가가 표현하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작품 해석이 어려움
- 어떤 의도나 영향력 등 장소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작가의 공간과 선율의 조화라는 의도의 표현도 느껴지지 않음
- 애매한 조형성과 개념

7. 시간의 복제-보쉬2(Boshc2)

<긍정적 의견>

- 보쉬의 작품을 작가의 의도에 의해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 작가의 기존 작품경향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움
- 서정적인 이미지로 공간에 무리없이 어울림
- 보는 이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불러일으킴
- 건축물 내부설치 공간과 조화로운 심미성
- 회화작품의 규모 및 완성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 과정의 시간을 포함한 흥미로운 작품
- 미니멀한 공간에 어울리는 구성
- 비교적 무난함. 단 작품가격은 다소 고가로 책정되어 있음
- 무난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의견>

- 보쉬(BOSCH)의 작품 중 ‘ 쾌락의 정원’ 3단화 의 중앙 부분에서 발체한 기성 이미지를 재현(복제) 하는 과정(시간)을 조형화한 작품이 로비 미술품으로 의미

가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작품임

- 왜 이 공간에 이런 작품이 들어와야 하는지 설명 부족
- 설치예정지와 작품의 내용이 맥락적으로 닿아 있는지 의문
- 작품의 주제와 설치 공간의 조화가 어우러지지 않음
- 설치 공간이 로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체 형상이 다소 난해하고, 뜬금없음
- 생과 사, 실상과 허상 등을 조형화 한 작업으로 업무용 건축물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됨. 특히 표현된 조형성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맞지 않게 생각됨
- 페인팅이더라도 어떤 공공장소에 왜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예술향유로서, 미관사업으로서, 장소의 의미 강화로서 등)

<기타 의견>

- 주변 환경에 비해 작품이 세밀하여 화이트 큐브에 맞는 작품
- 작품이 걸리는 위치가 재고려되면 좋을 듯함. 또는 옆 소화전 설비가 작품에 방해되지 않게 조치될 필요 있음

8. 기억의 흐름_Hole

<긍정적 의견>

-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
-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감흥과 경험을 주는 재미있는 작품으로 설치장소와 조화로울 것 같음
- 기존 여타 건축물미술작품과 차별된 독창성
- 회화적 상상력과 조각적 현실성이 결합된 작품
- 착시를 이용한 흥미로운 연출, 공간에 어울림
- 무난해 보임
- 공간과 잘 어울림
- 착시를 활용한 위트있는 작업이라 공간감을 넓혀 관람객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옵아트를 활용하여 공간감을 창출한 작품으로 긍정적임
- 작품의 주제 표현과 의도가 긍정적임
- 시각적 착시 효과로 재미적인 요소와 참여형 미술 작품이 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임
- 주변에 명품과 패션의 문화예술 거리의 근거리에 위치한 건축물에 합류할 조형물로서 특별한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됨. Hole이라는 작품처럼 기억과 시간 속에 저장과 인출의 반복 그것이 이 주변 장소와 어울리고 건축물과 관람객 에도 특별한 경험을 인출시켜 줄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의견>

- 전시공간과 작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함
- 표현이 다소 진부함
- 기존 작품의 단순 복제
- 바닥 설치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방안 마련을 권유함
- 돌 오브제와의 관계적 맥락을 파악하기 다소 어려움
- 관광호텔의 설치 공간이기에 주제가 다소 무거울 수 있음
- 작품의 규모 제작 난이도 재료 등을 검토해 볼 때 다소 과다 예산 책정
- 작품가 과다. 조각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음

9-1. 주가 상승 · 하락의 상징 소와 곰(Bull&Bear)

<긍정적 의견>

- 그동안 실내에서 보아 왔던 고착된 건물의 상징성이 오히려 퇴색되지 않을까 다소 우려는 되나, 위치 변경의 의도가 이해되어 별 무리는 없어 보임
- 이의 없음
- 내부 보다는 외부가 어울리는 조각 작품으로 외부에 전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옥외 장소에 어울림
- 관람객 노출이 증대되어 긍정적
- 무난하다고 판단됨
- 본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곳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부정적 의견>

- 사람의 주요동선에 위치하여, 다소 보행에 지장을 줌
- 보행로를 막아서듯 배치되어 보행자에 불편이 예측됨
- 지나친 축의 정면성과 도보 방해
- 통로에 배치됨으로서 통행의 방해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위치가 보행을 방해 하고 있어 보임. 다른 위치 또는 방향에 대한 재고려 필요

<기타 의견>

- 작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볼 때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작품을 가로보다는 세로로 설치하기를 추천함
- 원활한 보행자 및 관람자 통행을 위해 세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 조명을 밝혀 보행에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음

9-2. 증권거래소 세계화의 상징 <다이아몬드> 상

<긍정적 의견>

- 무난함
- 공간에 무리 없음
- 변경 위치는 조형물의 컨셉을 표현하기에 적절함
-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무리가 없는 위치변경으로 판단됨
- 미니멀한 조형이 주변 경관과 어울림
- 관람객 노출이 증대되어 긍정적

1, 2-1, 2-2, 3, 7, 8, 9-2번이 승인되었으며, 6-1, 9-1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보고안건>

1. 세기의 선물

- 2021년 12차시 “작품의 규모를 고려해 시공시 안정성 확보” 로 조건부 승인 된 작품으로 그 이행을 확인함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